

최남단에서 최동단을 바라보다.

접 수 번 호	
학 교 명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동아리(팀)명	해빛은결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해빛은결’은 해의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물결이라는 뜻으로 찬란한 태양 빛을 받아 반짝이는 독도의 바다를 뜻한다. 동시에 흔들리며 반짝이는 물결처럼 여러 고민에 흔들리지만 스스로의 빛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상징한다. 햇빛이 아닌 ‘해빛’을 사용한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팀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 교육, 문예 등 각자의 진로는 다르지만 1학년 생활을 함께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 단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또한, 각자 진로 희망 분야가 다른 만큼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에 유리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강민정	2	자료수집, 만들기, 내용 정리
2	강신재	2	자료수집, 만들기, 내용 정리
3	김선빈	2	자료수집, 만들기, 보고서 작성
4	심영은	2	자료수집, 만들기, 내용 정리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을 실생활에 접목하는 것.

- 주제 선정 이유 : 독도는 흔히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었다.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지만, 실생활에서 독도를 쉽게 접하는 것은 어려웠다. 독도를 친숙하게 여기지 못하고, 독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독도를 수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독도를 체험해보지 않고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독도가 왜 우리

의 땅인지,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독도를 늘 곁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독도 체험 발표대회에 참가한 것은 독도가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정보로서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독도를 접할 기회는 교과서가 다였다. 교과서에는 언제나 독도가 가진 자연환경과 분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독도를 생활 속에서 접할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스스로 독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독도를 진정한 우리의 땅,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 기회를 얻었다.

단순히 독도를 체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도를 홍보함으로써 바쁜 삶 속에서 소홀해졌던 독도를 상기시키려 했다. 독도를 지키라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벗어나 독도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에 접목하고 이를 알렸다. 이 과정을 통해 교과 과정에서 배우기 어려운 사회성도 함께 함양할 수 있었다.

○ **활동 기간** : 2018.6.7. ~ 2018.8.16.

○ **추진 방법** :

1. 독도 캔들과 향수 만들어 판매하기.
2. 독도 포스트 작성하기.
3. 독도 명함 나눠주기.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1. 독도 캔들과 향수 제작 및 판매.(2018.6.7.~2018.6.20. 제주사대부고)

◆ **독도 캔들**

독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다였다. 바다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으며 독도를 홀로 떨어뜨려 놓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와 독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독도의 바다를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캔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바다의 투명함을 담기 위해 불투명한 왁스가 아닌 투명한 왁스를 사용하였다.

독도를 대표하는 생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괭이갈매기' 이지만, 우리는 독도 해국, 털머위 등의 식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독도 해국은 향수에 사용하였고 캔들에는 털머위를 연상시키는 노란 꽃을 넣었다. 캔들은 젤 왁스를 녹인 후 미리 꾸며놓은 용기

에 부어 굳히기만 하면 완성되었다.

바다를 상징하는 만큼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캔들의 용기 겉에는 '최남단에서 최동단을 바라보다.' 문구와 포스트 주소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였다. 가장 좋은 품질의 캔들을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고, 금세 완판되었다. 200개의 캔들이 모두 팔리면서 독도에 대해 특별한 기억을 만든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다.



(캔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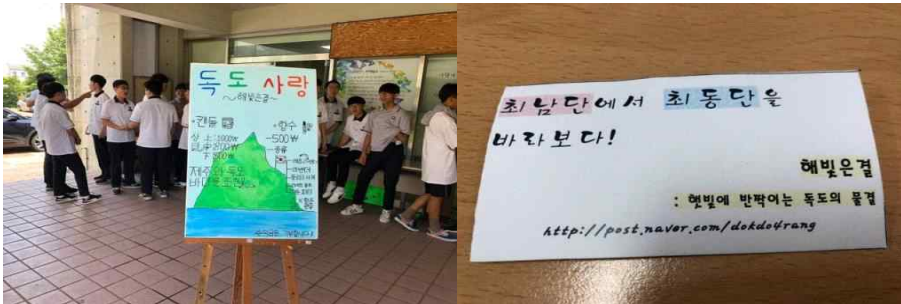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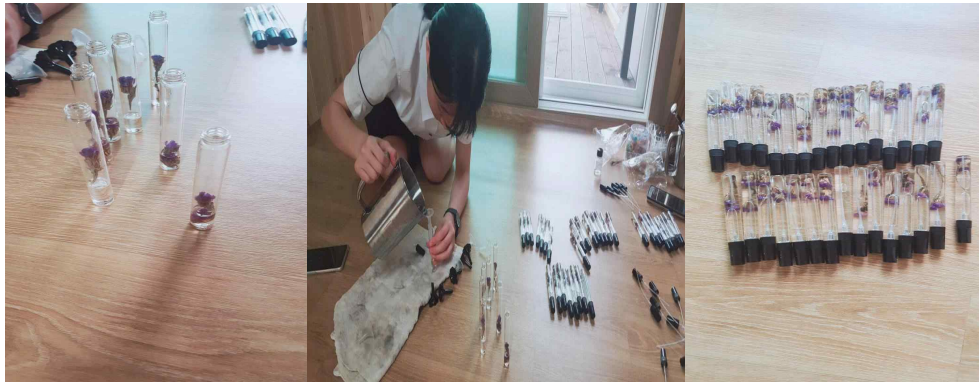
(캔들 판매)

◆ 독도 향수

캔들과 함께 판매하기로 한 향수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독도 향수는 제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제주와 독도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는 공통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독도와 제주의 환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자연과 연관된 꽃향기, 바다 향기 등을 사용하였고, 향수 내부에 독도 해국을 상징하는 꽃을 넣었다. 향수를 사용할 때마다 독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독도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린 꽃, 향료, 향수 베이스, 향수병이 필요하다. 라일락, 가든파티, 플로티 사케, 라이트 블루, 레몬 라벤더 등의 자연적 향기를 가진 향료를 향수 베이스와 일정한 비율로 1:4의 비율로 섞어 말린 꽃이 들어있는 향수병에 담은 후 알맞은 크기의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면 완성된다. 홍보스티커에는 '최남단에서 최동단을 바라보다.' 문구와 포스트 주소가 들어있었다.

향수는 총 50개를 만들어 선착순 한정판매 하였다. 학생들이 탈취를 위해 향수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선착순 판매는 금방 끝났다. 개당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 향수는 완판되며 큰 인기를 누렸다.



(향수 제작 및 판매, 명함)

2. 독도 포스트 작성.(2018.6.16.~2018.8.7. 포털사이트 네이버)

◆ 독도 포스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빛은결의 독도 포스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포스트를 사용하였다. 블로그와 비슷하지만,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독성이 좋은 포스트는 사진 자료가 많이 사용되는 독도 알리기에 유용하였다. 해빛은결의 집결 이유, 해빛은결의 활동, 독도를 표현한 작품들, 독도의 주민 생활, 독도가 처한 분쟁 등을 포스팅하며 독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전하려 했다. 6월 16일에 첫 글을 작성하며 활동을 시작한 뒤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히 포스트를 작성하였다.

독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 작품, 독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책을 소개하는 등의 문자적 정보를 전달하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독도의 아름다움과 독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할 수 있었다.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글로만 작성한 것이 아닌 다양한 사진을 활용하며 문학 작품이라는 주제에서 느껴질 수 있는 지루함을 없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다양한 자료와 사진을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여,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자료를 찾을 때 외교부 홈페이지를 자주 사용하는 등 정보의 출처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독도에 관한 사소한 궁금증에도 주목했다. 독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독도를 방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조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였다. 특히

독도에 방문하는 방법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독도행 배의 시간표까지 조사하여 포스트에 첨부하였다.

단순히 독도에 대해서 정보만을 나열한다면 교과서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해빛은결의 활동도 함께 작성하였다. 독도 캔들과 향수의 재료는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또한, 판매 및 교외 홍보 활동을 담은 사진까지 게시되어 해빛은결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독도 포스트는 <http://post.naver.com/dokdo4rang>을 주소창에 작성하거나 네이버에 '해빛은결'을 검색하면 방문할 수 있다.



지하상가에서 만났던 학생들! 참 이쁘고 열정이 가득하고 순수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학생들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에 홍보명함 받고 잊고 있다가 오늘 명함 보고 한번 들어와봤어요. 수고하세요~~^^

2018-08-10 13:33 | 신고

(포스트와 댓글)

3. 독도 명함 나눠주기.(2018.7.31. 제주시 지하상가, 제주시 중앙로 일대)

◆ 교외 홍보 활동

독도를 바로 알리고 독도 포스트를 홍보하기 위해 캔들과 향수를 판매하는 등 교내 홍보를 진행하였지만, 한정된 인원에게만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직접 교외로 나가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빛은결의 활동을 전파하고자 했다.

제주도의 중앙로, 지하상가와 같은 변화가는 유동 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 해빛은결의 명함을 나눠주고 포스트를 홍보하기에 적합했다. 해빛은결의 활동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리는 스케치북 그림과 함께 해빛은결의 명함, 간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직접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SNS를 활용하여 독도 포스트를 알렸다.

가장 처음 홍보를 진행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상가 출구였다. 명함을 나눠주는 동시에 스케치북을 보여 주었고, '해빛은결'은 독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포털사이트에 '해빛은결'을 검색하면 독도에 관해 작성한 포스트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미리 준비한 간식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출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며 중앙로 큰길에서도 홍보를 진행하였다.

직접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트위터, 카카오톡 등의 SNS에도 포스트 주소를 알리고 해빛은결의 활동을 홍보하였다.



(홍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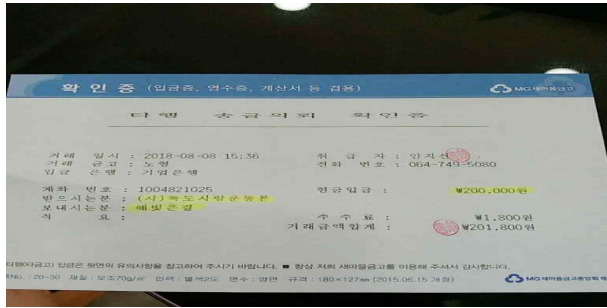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요약서	보고서	활동 내용 요약
2	활동 보고서	보고서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과 실생활화 전략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실생활에서 독도를 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캔들과 향수 판매로 극복할 수 있었다. 꽃을 사용한 캔들과 향수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독도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총 216,100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중 20만 원을 독도 사랑 운동 본부에 기부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캔들과 향수가 독도를 실생활에 넣어주었다면 포스트는 독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독도를 주제로 한 문학 작품과 같은 지식은 평소 접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포스트를 작성하고 홍보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독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6월 조회수는 76회에 불과하지만 7월 조회수는 그 두 배를 넘는 190회라는 점에서 포스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교외 홍보의 성과도 뛰어났다. 명함을 나눠주고 SNS를 사용하여 홍보한 이후 포스트 방문 숫자가 크게 늘었다. 평균 30회 정도였던 방문 숫자가 70회를 넘었고, 작성된 글의 조회수도 두 배로 늘었다.

○ 향후 계획

- 독도 재단에 기부되는 제품을 소비하거나 독도의 날에 SNS를 통해 독도를 알리며, 3분 스피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독도를 소개하는 등 생활 속에 독도를 접목시킬 것이다.
- 독도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독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작성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독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김선빈	대회를 진행하면서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 많았지만, 팀원들과 협력하며 어려운 점을 이겨낼 수 있었다. 특히 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었는데 잘 극복해 낸 것 같아 기쁘다. 글을 쓰는 것을 진로로 정한 나로서는 이 독도 포스트 작성 활동이 나의 미래의 기반을 다진 것 같았고, 더불어 독도를 알린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다.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아가 독도를 실생활에서 익숙하게 만들고 싶어 참가한 대회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강신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독도 체험 발표 대회에 신

	<p>청하게 되었다. 독도에 대해 발표하기 위하여 독도의 동식물, 지형, 역사 등을 공부했음. 이 지식을 바탕으로 독도 캔들과 향수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배려심,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포스트를 작성하며 독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여럿 알게 되었고 직접 정보를 포스팅해보며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명함 나눠주기를 통해 타인에게 용기 있게 말을 걸 수 있는 자신감도 함양할 수 있었다. 단순히 대회를 넘어서 독도를 알리는 노력을 해보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다방면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음. 대회가 끝나도 독도에 대해 잊지 않고, 독도 재단에 기부되는 제품을 소비하거나 독도의 날에 SNS를 통해 독도를 알리며, 3분 스피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독도를 소개하는 등 생활 속에 독도를 접목시킬 것이다.</p>
심영은	<p>독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독도에 관한 심화공부를 해 볼 수 있어 유익했다. 독도 기부목적으로 제작한 캔들과 향수를 구매해가는 학생들에게 그에 담긴 꽃들의 의미와 간단한 독도 지식을 설명해주었는데,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이 뿌듯했다. 이번처럼 독도에 관한 많은 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모두가 접하기 쉬운 어딘가에 접목시켜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p>
강민정	<p>독도체험발표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해 공부하고,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주변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대회를 신청하게 되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독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의견을 교환하며, 우리 팀이 의도했던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에 존중하고 타협할 줄 아는 자세를 배웠다.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조원 간의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조원들이 서로 배려와 협동심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도홍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막상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포스트를 홍보해보니 선생님, 재학생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져줘서 뿌듯했다. 앞으로도 독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다.</p>

5. 건의사항

○시험 기간과 활동 기간이 겹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지나간 날이 많았다.